

간담회 회의록

회의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19:00 ~ 21:00
참석자	천안시티FC 박진섭 감독, 이영익 전력강화실장, 사무국장, 선수단지원팀장
회의 안건	2026시즌 성적 부진 상황 설명 및 2027시즌 대비
회의 내용	내용 1. 개회 인사 2. 현장 질의응답 Q. 올 시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감독님의 10개월에 대한 말씀 듣고 싶다. (박진섭 감독) 처음 부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성적이 작년보다 좋아야지 아마 시에서도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만큼 팬분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시즌 준비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자는 목표가 있었고, 그에 맞게 나이가 있더라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도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았었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더 바라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됐었는데 성적에 대한 마음이 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시즌인 것 같다. 또 외국인 스트라이커 부분에 대해서 스카우트가 실패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득점력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스카우트 쪽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좀 더 신중하게 뽑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Q. 감독님이 방금 답변하신 선수 역할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경험 있는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경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의 출전 횟수와 스탯을 보면 그렇게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경력만 길기 뭣지 못했던 선수들도 많고, 천안에 와서 뛰었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진섭 감독)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팀 방향성과 맞는 선수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파주, 김해, 용인 3팀이나 합류하는 바람에 서로 선수를 영입할 때 중복되는 선수들도 많았고, 그러는 바람에 선수 개개인의 몸값도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는 선수들도 있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선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살펴 보면서 영입을 한 상황이었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쨌든 당시 저희 생각에 나름에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Q. 전반기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월드컵 휴식기 이후 성적이 급격하게 안좋아졌다. 감독님 입장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섭 감독) 저희도 그 부분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13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는 동안 생각했던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다. 그래서 휴식기를 거치면서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 시간을 가졌고, 더운 여름 날씨에 어떻게 선수들이 더 많이 뛸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확실히 선수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특히 후반 막판에 먹는 골도 많았었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영향도 미쳤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의 스쿼드가 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싶다. 저희가 13경기동안 한 골 차 승부가 많았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집중력 부분에서 저희가 전반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반기 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으로서 아쉬웠던 것은 여름 휴식기 때 축구센터에서 줄곧 훈련을 많이 했다. 타 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클럽하우스에서 훈련한 팀도 있지만 팀의 사정에 따라서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계 전지훈련을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진행한 구단도 있다. 그런 구단들은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성적이 유지되거나 향상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다. 예산적인 부분도 한정되어 있었고, 내부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가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더위가 선수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Q. 하계 전지훈련 같은 문제는 매년 겪던 문제다. 매년 질문했던 문제고 매년 답변을 들었다. 올해 초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는 휴식기에 전지훈련 안가는데 대한 질문에 여기(축구센터) 시설이 좋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지훈련을 가지 못해 아쉽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

(사무국장) 매년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저희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선수단 수를 줄이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간다거나 하는 문제 해결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단장님이다. 사실은 단장님이 여러 차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해결을 하려고 하면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에 부딪힘이 있다.

Q 감독님께서 여름 휴식기에 스쿼드가 두텁지 못하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스쿼드 보강 계획이 있는지? 이바닐도 선수를 영입했는데 장기간 부진에 빠졌었고, 부상 복귀 이후에도 부진했다. 시민구단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스트라이크 보강 계획은 있는지 여쭙보고 싶다.

(이영익 전력강화실장) 작년에 저도 있었으니까 제가 답변하겠다.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되게 많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시장님 부재, 단장님 부재 등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번에 겨울에 선수 영입할 때도 제가 태국 전지훈련에도 동행하며 외국인 선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3명 정도의 선수를 뽑아준다고 가정하면 감독님이 전략을 짜시는 분이니까 코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중 뽑게 되는 과정이다. 이바닐도 선수를 뽑았는데 뽑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훈련을 하면서부터 근육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 외국에 가서 지켜보면서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되는데 우리는 예산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올해는 얼마전 김철호 스카우터가 브라질로 떠났다. 현재도 한 게임을 보고 선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단지원팀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철호 스카우터가 10월 5일 브라질로 갔고, 약 한달동안 선수 스카우팅에 전념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왕포워드, 센터 포워드 리스트를 어느 정도 추려서 브라질로 갔다. 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보되 그 선수 이외에도 경기 보면서 괜찮은 선수들 리스트를 더 추려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보고 온 것을 토대로 강화실장님하고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외국인 선수는 그렇게 뽑으려고 하고 있다. 국내 선수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 아직 고민 중인 건수가 좀 더 지켜봐야 할 선수가 몇 명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 지금 영입 대상자 리스트도 약 39명 이상 있다. FA선수들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 잘 맞을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U22세 카드 준비 차원에서 공개 모집도 하고 있는 중이다. 약 200명의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다음주에 프로 코칭스태프, 유소년 지도자, 전력강화실 약 12명 정도의 지도자가 선수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로 배번만 보고 평가할 예정이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스쿼드 준비는 지난 달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Q 보통 저희 팀 외국인 선수들이 1차 전지 훈련 끝나고 뽑혔다. 이번에는 전지 훈련 전까지 마무리 될까?

(선수단지원팀장) 매년 상황들이 있었다. 저희가 픽을 했는데 고민하다 못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선제적으로 하려고 일부러 브라질로 스카우터도 출장을 보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저희 목표는 전지훈련 가기 전에 입국하는 게 목표다.

(사무국장) 계획은 그렇지만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다른 팀에서도 보고 있는 선수로 중복되는 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쓰는 좋은 조건에 있는 구단으로 간다.

(선수단지원팀장) 특히 외국인 선수는 계약서 쓰기 전 단계까지 갔음에도 갑자기 안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100% 오진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황, 시기가 다 맞아야 우리 팀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지만 거른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Q 현재 이바닐도 선수는 한국에 있나?

(선수단지원팀장) 현재 한국에 있는데 몸이 좀 아파 관리가 필요하다.

Q 그냥 계약해지 하면 안되나?

(선수단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논의 했는데 현재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비행기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무국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선수하고 계약에 있어서 FIFA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다. 예전에는 구단에서 계약해지 하는 일들이 많아서 FIFA에서 룰을 정했고,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없다.

Q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 궁금한 점이 계약 할 때 장기 부상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 삽입이 불가능한가?

(사무국장) 해당 조항을 넣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이 있으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Q. 부상 회복하고도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상 여파인지는 몰라도 기량 부족으로 보인다. 6경기 뛰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였나?

(선수단지원팀장) 그 당시에는 거의 회복이 된 상황이었다.

Q. 그 정도의 실력이면 처음부터 안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박진섭 감독) 저희가 리스트를 처음 공유 받았을 때 약 100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고 결정을 한다. 포지션별로 다르겠지만 스트랑커는 약 4-5배 선수를 보고, 3명의 후보군을 추려 결정을 하게 된다. 작년에는 3순위까지의 선수 영입을 모두 실패했다.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계속해서 후순위 선수들로 가기 시작했고, 외국인 선수 등록 기간까지 날짜가 너무 촉박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몇 명의 선수 중 고민하다 이바닐도 선수를 골랐다.

한국에 와서 같이 훈련을 하고 지켜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비디오를 본 것보다는 실력이 떨어졌다. 그건 분명히 저의 실패다. 저희가 영입 전 코칭스태프하고 다 같이 비디오를 보고 이바닐도 선수로 결정을 했지만 어쨌든 직접 한국에서 봤을 때 비디오로 봤던 실력이 아니었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한다. 그럼에도 훈련을 시키면서 한국 축구에 적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부상 회복하고 몇 경기 출전을 했던 거 있는데, 그 때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시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상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Q.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다음 시즌에도 같이 갈 예정인지?

(사무국장) 올해까지 계약이다.

Q.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선수단지원팀장)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 라마스, 사르자니 선수는 유지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영입할 예정이다.

Q. 윌리안은 임대 기간이 끝인가?

(선수단지원팀장) 올해까지다.

Q. 툰가라도 이번 시즌까지인가?

네

Q. 외국인 선수 영입 시 비디오를 보고 판정 하신다고 했는데, 비디오라는 게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비디오는 아닐거다, 선수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는 비디오인가?

(선수단지원팀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다. 한 선수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선수의 골 장면, 슈팅 장면 선수의 경기 장면이 편집되어서 나오고, 그 선수의 풀 영상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등록된 축구 선수 모두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이다.

Q. 이바닐도 선수는 처음 왔을 때 부상을 입고 온 상황인가?

(선수단지원팀장) 메디컬 테스트에서 몸 상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매우 성실하고 인성도 좋다. 그러다 보니 늦게 합류한만큼 본인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부상이 발생한 것 같다.

Q. 선수층이 얇다 보니 주전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았고 그로 인해 후반이 갈수록 부상과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는데 내년에는 포지션별로 선수층을 어느정도 확보할 계획인지, 단순히 숫자를 늘릴 계획인지 특정 포지션 질적인 보강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또 즉시 전력감인 선수의 영역과 육성하는 선수의 비중을 어느 정도르 가져갈 계획인지, 현재 가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력강화실장) 한 포지션에 3배수씩 구성할 예정이다. 1번은 베스트 선수를 2번은 1.5군 선수로, 3번에는 가능성 있고 키울 수 있는 선수 구성할 예정이다. 되도록이면 천안 지역 출신이면 더 좋다. 훈련을 하다 보면 거꾸로 1번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시즌을 지나다 보면 부족한 포지션이 생길 거다. 그런 포지션은 구단하고 상의해서 보강하는 체계를 가지고 갈 생각이다.

(박진섭 감독) 제일 신경 쓰는 거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다.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크고 라마스, 사르자니 두 선수 빼고 나머지 선수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국내 선수에서 지금 제일 신경 쓰는 포지션은 미드필더 포지션이다. 그 다음 앞은 스쿼드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멀티 포지션의 선수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 중이다. 한 자리 보다는 두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스쿼드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키울 생각 중이다.

Q 감독님께서 외국인 선수가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따랑 파울리뇨 있었던 시절에는 외국인 선수 2명으로도 성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5명을 데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는 거 같다. 내년 구상도 연봉을 평준화 시켜 5명으로 갈 예정인지 아니면 금액이 좀 높더라도 3명 정도로 줄여서 가실 계획인지

(선수단지원팀장) 저희가 외국인 선수를 뽑을 때 지금 3명 보장을 해서 5명으로 계획을 했지만 이 선수가 너무 좋아서 2명의 연봉을 투입해서라도 이 선수를 잡아야겠다 하면 인원이 적어지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 선수면 괜찮겠다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 수 만큼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Q 현재 단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강화실장님과 감독님이 선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절하고 계신 것 같다.

(사무국장) 선수를 영입할 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감독님이 결정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결정을 한다. 단장님은 모든 것을 총괄한다. 현재는 직무대행으로 계신 상황이다. 예산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시의회로 넘어가고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최종 편성이 된다.

Q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서 이 정도의 돈을 쓰겠다 했을 때 단장님이 계시고 안계시고의 차이가 있나?

(선수단지원팀장) 지금 큰 차이는 없다. 단장님이 직무대행으로 계시지만 선수를 결정하는 거에 전력강화실장과 감독님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면 선수 뽑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전혀 문제 되는 것은 없다.

Q 아까 말씀하실 때 단장님도 안계시고 시장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랬다 라고 말씀 주셔서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사무국장)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 사항이나 이미 예산은 연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크게 지장이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수 영입을 결정할 때 30만불이나 50만불이나 결정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장님한테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중간에 있는 35만불 선수를 결정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상황에 맞다.

Q 단장님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봐도 되는건가?

(사무국장) 축구단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회사원 입장에서 보면 축구단의 단장님은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 결정하기 이전에 많은 보고도 올리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 같다.

Q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사무국과 소통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다.

(박진섭 감독) 감독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 영입 시에 소통이 덜 되었던 것 같다. 제가 원하는 건 가서 직접 보고 뽑는 거를 가장 원했는데 제가 늦게 오기도 하고,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고 뽑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문제를 올해 고쳐 나가려고 지금 김철호 스카우터가 브라질에 갔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 영입에 있어서는 소통은 다 잘 되었고, 하지만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인 것 같다. 올해 여기 미팅실이나 식사 장소도 많이 만들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아진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소통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Q 그런 부분을 보통 하위 팀에 감독으로 오시면서 감수 하고 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오기 전에 다 파악이 됐었는지 아니면 오고 나서 느끼셨는지?

(박진섭 감독) 시민구단에 어느 정도 알고 왔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와서 알았다.

Q 시민구단 같은 경우 예산 자체도 적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오셨고, 그렇지만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

신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는지?

(박진섭 감독) 그게 다는 아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의 방향성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의 실패가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위 팀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와서 해보니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여름에 성적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아서 가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다.

Q 시즌 초반에는 7경기 무패 행진도 하면서 순항하고 있다가 혹서기 이후 말씀하신 체력적인 문제와 외국인 선수의 득점력 빈곤 때문에 13경기 무승을 경험하셨다. 이걸 반면교사 삼으셔서 내년에는 어떤 축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팀을 이끌어갈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저희가 남은 6경기에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을 거다. 내년을 준비하는 6경기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A매치 휴식기 동안 젊은 선수들, 내년에 같이 가려고 생각하는 선수 위주로 경기에 임할 생각이다. 내년에 제가 원하는 건 젊고 속도감 있는 축구다. 또 느낀 것이 팀에 애정이 덜한 선수가 많이 보였던 것이 아쉬웠다. 잘해서 다른 팀을 간다거나 갈 곳이 없어 온 선수들이 많이 보였다. 그런 선수들 보다는 팀에 애착이 있고 팀을 좀 더 사랑하고 이 팀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고 이 팀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선수를 영입할 때 그런 면에서 선수들 태도나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시즌 끝나고 FA로 풀리는 걸로 아는데 국내 선수 재계약 예정인 선수가 있나?

(박진섭 감독)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에서 지금 재계약을 생각하는 선수가 지금 이상준 선수, 이지훈 선수, 구종욱 선수가 FA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상준 선수는 여름에도 타 팀에서도 오퍼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좋은 자원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연봉이 높다. 내년에 얼마나 많은 연봉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지훈 선수랑 구종욱 선수의 경우 워낙 인성적으로나 팀 내에서의 능력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잡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에 세 선수에 대해 구단하고 상의하고 있다.

Q 3명의 선수보다 더 갈수도 있나?

(박진섭 감독) 더 검토를 해볼 선수들도 있고, 이미 검토가 끝난 선수도 있다.

Q 윌리안 선수는 아직 부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경기 어떻게 활용 할 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윌리안 선수는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왼쪽 윙포워드에서 윌리안 선수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라마스 선수다 뒤에 있는 선수들이 패스를 주면 충분히 돌파도 가능하고 득점력도 기대하고 있다.

Q 윌리안 선수가 오자마자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 영입 시 오래 경기를 뛰지 못해 경기력이나 메디컬 테스트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선수단지원팀장) 윌리안이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어렵게 훈련을 하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으로 들었다. 오자마자 성남전 후반 투입했지만 컨디션이나 체력적인 게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든다. 그런 과정에서 훈련하고 김포전에 뛰면서 타박에 의해 종아리 파열이 약간 있었다. 지금은 다 회복되어 정상훈련한지 2-3주 정도 되었다.

Q 저희가 봤을 때도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 그 부분에서 탈이 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다.

(박진섭 감독) 저희도 성적이 급했고, 윌리안 선수가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라 빨리 쓰고 투입 시키고 싶었던 것도 있었다. 시즌 초반이었으며 아마 선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경기에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몇 경기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좀 빨리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부상이 생기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Q 작년에 있던 이정열 스카우터가 거의 1년동안 있었다. 이 분이 1년동안 있으면서 남겨둔 지표가 있나, 단장님하고 거의 동시에 울산에 가셨다. 그러면 거의 1년동안 계신건데 이분이 지표를 남겨서 천안에 들어온 선수나 예정인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다

(선수지원팀장) 나갈 당시에는 없었다. 천안에 있을 때 봤던 선수들 리스트는 다 있다. 하지만 감독님이 바뀌면서 감독님 체제로 돌입하며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를 많이 보러 다녔다. 천안에 있을 때에 선수 추천을 많이 했다.

(사무국장) 단순히 말씀 드리면 스카우터는 감독님의 의중이나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본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를 제외하고는 감독님의 스타일이나 전술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도에 따라 스카우터가 선수를 보러 다닌다. 감독님이 새로 오셨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하며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보러 다닌다. 뭐가 남고 안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때의 계획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선수 선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

(선수단지원팀장) 선수 추천 많이 했다. 별도의 리스트도 있고, 이정열 스카우터가 있었을 때 추천을 했지만 영입을 못한 선수들도 몇 명 있다. 그래서 당시 김태완 감독님도 안타까워했다. 대학교, K3리그 가서 경기도 많이 보고 프로 선수들도 추천을 많이 했다. 이정열 스카우터가 이상준 선수를 1번으로 데리고 왔다.

Q 오늘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년 시즌에도 비슷한 예산 규모를 시청에 요구하실건지?

(사무국장) 원래는 저희가 더 큰 금액을 사실 원했다. 프로 구단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 이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이 있다. 보고를 드렸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

Q 전술을 얘기하고 싶은데, 전반기는 수비적인 전술을 했다고 생각한다. 감독님 머리에 전술적인 구상이 있을 텐데 감독님이 추구하는 이 전술을 내년에도 끌고 갈건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서 다른 전술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저희가 작년에 수비에서 많은 실점이 있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전술도 당연히 수비를 많이 강화했다. 수비가 먼저 강화가 되어야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나서 여름을 기점으로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공격적인 숫자를 많이 두고 이제 공격적인 전술로 운영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번 A매치 휴식기 동안 전술적으로 아예 바뀌어서 이전에는 쓰리백 위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포백 위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속도감을 올리려고 공격 쪽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면서 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공격 축구나 수비 축구를 단정 짓기 보다는 속도적으로 빠른 축구를 하고 싶고, 앞으로 천안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첫 발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술에 맞는 선수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전술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Q 팀의 크로스 정확도와 코너킥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크로스가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거나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코너킥을 통한 득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감독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크로스의 정확도와 세트피스 득점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및 보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크로스과 슈팅의 정확도는 선수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한다. 코칭스태프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크로스 훈련을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크로스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공을 차는 것은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술적인 능력이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코너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공권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낮게 연결하는 코너킥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황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앞으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Q 그러면 개인적인 능력으로 크로스가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꽤나 많은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막혀서 어쩔 수 없이 크로스를 하신 건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크로스 찬스에서 좋은 크로스가 날아오면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요구하는 것인데, 크로스의 질이나 선수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선수에게 크로스를 하면 좋은 찬스가 나는 상황에서도 '너는 크로스를 못하니까 크로스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가져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이 선수가 이번에는 크로스를 잘 올릴 것 같다, 아니면 잘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선수를 믿고 크로스를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로스의 질을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Q 코너킥 때 보통 바로 직접 차주는 전술도 있지만, 패스를 연결해서 하는 전술도 계속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패스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공격 기회를 계속 뺏기는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전술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연습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도 '그 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왜 계속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공격 기회를 뺏기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박진섭 감독) 그 부분에서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상대도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완벽하게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Q. 감독님이 크로스를 지향하시는지 알고 싶다. 경기를 보면 크로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감독님이 어떤 전술을 원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크로스를 많이 지향한다거나 적게 한다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크로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드백들이나 윙들에게 크로스 훈련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크로스도 중요하지만 그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훈련하고 있지만,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계속 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크로스가 약하다고 해서 공을 잡고 뒤로 보내거나 계속 돌리다 보면 경기가 지루해질 수도 있고, 상대에게도 너무 많은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로스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예정대로 새 단장님이 선임되면 구단 운영에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새 단장님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인지도 궁금하다.

(사무국장) 현재로서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스포츠의 본질은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고, 일정이 확정되면 그 한정된 시간에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단장이 선임되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스폰서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장은 스폰서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선수 수급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보통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전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기 위해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차승현 선수를 영입했지만,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에 가는 상황이다. 영입 당시 군 입대로 인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사무국장) 군 입대와 관련해서는 합격 여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1차 합격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있었다. 당시 박창우 선수도 군 입대를 신청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박창우 선수가 선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박창우 선수와 유사한 선수를 검토해 영입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반대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다.

Q. 검토 대상이 1차 합격을 한 선수였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1차 합격한 선수들이 더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 선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누가 최종 합격할지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구단에서 박창우 선수가 선발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같은 조건의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차승현 선수가 능력이 있고 괜찮은 선수이며,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박창우 선수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차승현 선수는 군 입대를 하게 됐다. 김천 상무에 입대하면 보통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기량이 향상돼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기량이 떨어져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 자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를 미리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당시 구단에서는 박창우 선수가 1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이고 출전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선발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창우 선수와 유사한 선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승현 선수를 발견했고, 꾸준히 영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차승현 선수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는 영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이고, 복귀하면 28세 정도가 되는데 좋은 기량을 보여준다면 구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군 문제를 해결한 만큼 은퇴할 때까지 구단에서 오랫동안 활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영입을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Q. 군대 합격 이후 출전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부상 때문인가?

(박진섭 감독) 최근에는 정지황 선수의 폼이 더 좋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승현 선수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내년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팀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주고, 선수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결정했다.

Q. 같은 포지션의 이동협 선수도 포항으로 임대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차승현 선수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지황 선수가 주로 경기에 많이 투입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정지황 선수는 원래 포지션이 오른쪽 윙백이고, 박창우 선수도 현재 오른쪽 백이다. 이동협 선수와 차승현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왼쪽 백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풀백 포지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왼쪽 백을 보강할 계획

이다.

Q. 스카우터와 감독님께서선 선수를 영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선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지, 스카우터와 감독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의견을 듣고 싶다.

(사무국장) 앞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에 애정이 있고, 인성이 바르며 태도가 올바른 선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정연 선수의 경우에도 감독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 프로리그가 시작되면 훈련을 많이 할 수 없어 하루에 한 차례 정도 훈련을 진행하는데, 우정연 선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스스로 개인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런 모습에 따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느 감독이든 그런 선수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실장)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태도와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대표팀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고 해도 축구는 몇 명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감독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나 역시 축구인 출신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수를 볼 때 가장 먼저 성실함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경기 내용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 직접 스카우터를 파견해 훈련하는 모습이나 몸을 푸는 과정까지 살펴보고, 기회가 된다면 선수와 직접 대화도 나눠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선수의 성향이나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이러한 방식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천안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현지 파견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구단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지에서 직접 선수를 확인하고 영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할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인 선수에게는 적응 시간도 필요하다. 모따 선수의 경우에도 내가 알기로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처음부터 잘했던 선수는 아니었다. 한국과는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며, 실제로 외국인 선수 영입에 실패한 구단도 많다.

Q.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 중 눈여겨보시는 선수도 있나?

(전력강화실장) 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Q. 외국에서 선수를 처음 영입했을 때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선수단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있었던 선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자친구가 추운 날씨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해 떠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연봉이 비싼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에서 잘 뛰고 있고, 적응을 마친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 대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력강화실장) 한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감독님과 전술적인 코드나 성향이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끼자기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감독은 그런 유형의 선수를 볼 것이고, 스피드를 원하는 감독은 스피드가 좋은 선수를 볼 것이다. 감독마다 원하는 선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내에 적응이 되어 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선수의 몸값을 확인하고 구단의 예산과도 맞아야 하는데, 다른 팀에서 조금만 좋은 활약을 보여도 몸값이 금방 올라간다. 그러면 구단의 예산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Q. 작년 하반기 브루노 선수 같은 경우도 탈장 이슈가 있긴 했지만 단기간에 잘 해줬던 선수로 기억한다.

(선수단지원팀장) 일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몸값이 비싸다. 그래서 연말이나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때 영입하면 저희로서는 연봉을 많이 절약해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브루노 같은 케이스도 있었다.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데려올 수 있었고, 인성도 훌륭하고 의욕도 좋았다. 이전에 설움을 많이 받고 온 선수였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임했던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몸값이 높은 상황이다.

Q. 선수를 영입할 때 당연히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과 맞아야겠지만, 청주의 백성동 선수나 안산의 김인성 선수처럼 팬들이 봤을 때 '저 정도 선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FA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에게는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선수단지원팀장) FA랑 포지션별로 영입 리스트에 약 39명 정도 있다. 그 안에 '아'하는 선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여러 상황이 맞아야 하고, 계약 기간이나 연봉 등의 조건도 맞아야 한다. 저희도 그런 선수들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관련 리스트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영입이 성사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솔직히 천안이 라마스 선수를 데려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것도 비슷한 사례다. 선수가 연봉을 낮추거나 여러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영입할 수 있는 것이다. 2년 전 박주원 선수를 영입했던 경우도 그런 사례였다.

(사무국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인성 선수는 포항에 있을 당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연봉은 꽤 높은 상황이었다. 이후 본인이 연봉을 낮추고, 안산에서는 장기 계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김인성 선수가 안산을 선택한 것이다. 백성동 선수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연봉에 비해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안 선수로 선회했던 것이다.

Q.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할 텐데, 최종적인 영입 성공률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대략 10명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접촉했을 때 결과적으로 3명 정도 영입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1명 정도만 영입할 수 있는지 등 대략적인 성공률을 알고 싶다.

(사무국장) 포지션별로 다를 거 같다.

(선수단지원팀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 35명의 선수 모두 영입 당시의 스토리가 있고,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성공률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조건이 일치하는 선수를 테스트를 통해 선발했다면 성공률이 100%일 수도 있지만, 이를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선수 영입 과정에서 다른 구단과 경쟁이 붙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희와 아산이 한 선수를 두고 경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1억 원을 제시하고 아산이 1억 1천만 원을 제시하면 선수가 계속 조건을 저울질하면서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가 저희가 영입을 포기하면 협상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다.

Q. 10명의 선수 중 1등과 9등을 뽑을지 4등과 5등을 뽑을지

(박진섭 감독) 연봉에 맞춰 저희 상황에 따라 선수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단의 예산이 3억 원이라면 그 금액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선수가 기존에 1등이나 9등일 수도 있고, 4등이나 5등일 수도 있겠지만, 9등이라고 해도 처음 평가가 9등인 것이 저희 팀에 와서도 9등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감독님이 평가하는 선수들의 실력을 1등부터 30등까지 나눴을 때, 1등과 9등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4등과 5등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다. 즉,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한 명 영입하더라도 1등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3명의 선수단을 구성할 때 각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을 뽑으려고 한다. 만약 왼쪽 백 포지션에 1순위 선수가 없다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반면 미드필더를 영입할 때는 라마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2순위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5등 정도의 선수나 향후 1등이 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Q. 예전에 간담회를 할 때 비전 203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님이나 단장님이 바뀌더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운영되는 구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상황에 맞춰 수립한 계획이었지만 몇 년간 운영해 보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선수단지원팀장)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고 일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목표 달성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1번, 9번, 4번, 5번 선수에 대한 부분은 선수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1순위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지션별로 상황도 다르다.

Q.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퇴장으로 인해 경기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선수 개인의 성격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 선수들의 멘탈 강화를 위한 훈련이나 보완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골키퍼 부분에서는 전반기에 박대한 선수가 많이 출전했지만, 후반기에는 박주원 선수도 많이 출전하고 있다. 두 선수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골키퍼 포지션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경고나 퇴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율이 있다. 쓸데없는 경고를 받거나 심판에게 항의하는 경우, 파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거친 파울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퇴장도 마찬가지다. 실점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울을 해야 하는 상황처럼 팀을 위한 불가피한 파울도 있다. 상황을 구분해 정말 불필요한 파울이거나 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파울이라면 내부 규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 영리하게 파울하는 방법이나 선수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다.

골키퍼의 경우 박대한 선수가 시즌 초반에 많이 출전했고, 현재는 박주원 선수가 많이 출전하고 있다. 팬들도 선발 출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실력이다. 해당 주에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고 폼이 좋은 선수가 선발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훈련 태도다. 어떤 선수는 이번 주에는 열심히 훈련하지만 다음 주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선발로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훈련 태도가 달라지는 선수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 선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후반기에 박주원 선수가 많이 출전하는 이유는 훈련 태도가 더 좋았고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이다. 후반기에 박주원 선수가 많이 출전하는 이유는 훈련 태도가 더 좋았고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박주원 선수는 무릎에 약간의 부상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출전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대한 선수는 부상 이후 복귀했을 당시 컨디션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이 더 좋았던 박주원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박대한 선수의 몸 상태도 어느 정도 좋아졌고, 현재로서는 이번 경남전에 박대한 선수를 출전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Q 현재 부상 선수는 이지훈, 하재민, 이바닐도 세명인가?

(선수단지원팀장) 하재민 선수는 들어왔고, 장현도, 이바닐도, 이상용, 이지훈 선수 이렇게 부상입니다. 이지훈 선수는 수술을 했고, 이상용 선수도 지난 경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외부에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 장기 부상 선수나 2~3주 정도 부상을 당한 선수들의 상황을 SNS에 공유해 팬분들과 소통하는 방안에 대해 구단과 논의하고 있다. 장기 부상 선수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팬분들께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상대 팀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팀의 전략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Q 박주원 선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부상당했던 부위인가?

맞습니다.

Q 지금 무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수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박진섭 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했고, 중간에는 선수들에게 화도 많이 내봤다. 지금은 그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선수들의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 수 있도록 선수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11월 12월 군 복무 마치고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도 내년엔 데려갈 예정인가?

(선수단지원팀장) 윤용호, 장성재 선수 복귀 예정이다. 휴가로 미리 복귀해서 훈련은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섭 감독) 그 선수들도 똑같이 보고 판단을 생각이다.

Q 신한결 선수는 어떤 상황인가?

(선수단지원팀장) 계약해지를 했고, 요청에 의해 오피셜은 나가지 않은 상황이다.

Q 천안의 예산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궁금하다.

(선수단지원팀장) 중하정도 되는 거 같다.

Q 저희가 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만큼, 예산이 항상 적을 수도 없고 항상 많을 수도 없겠지만 그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번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예산 상황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장) 같이 시즌권도 많이 사주시고 후원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선수단지원팀장) 후원이나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다.

Q. 예산은 구단주의 의지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어쨌든 축구단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는 구단주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구단주께서는 축구단을 싫어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단지원팀장) 그건 예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후원 유치에도 많이 나서서 활동하고 계신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과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Q.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더 높여주지 않는 건 의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인가?

(사무국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제가 직접 접점이 있어 말씀을 들어보면, 구단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산이나 시장님의 공약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서도 축구단보다는 생활체육 등 다른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장님이 오시거나 저를 비롯해 시장님, 체육진흥과 공무원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다. 지금도 시의회 관계자분들에게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지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Q.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했던 스탠딩석은 어떻게 되는건가

(사무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별도로 구단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쪽으로 편성된 것이다. 해당 시설이 구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구단 예산으로 편성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고, 시의원이나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육상, 마라톤 등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왜 축구단만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단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른 종목에서도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체육진흥과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예산이 반영된 것은 직접 확인했다. 이후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화체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임위원들이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만, 해당 예산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Q. 결정이 언제쯤 날까?

(선수단지원팀장) 의회 마지막 예산 결산하는 날 거의 결정이 된다. 통상적으로 12월 중순쯤 최종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사무국장) 예산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시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이전에도 시민들이 참여해 예산 절감이나 불필요한 지출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 모여 회의하는 것처럼 중간에 여러 회의와 심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후 최종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구조다.

Q. 단장 공식 기간 동안 기존 체제로 충분히 잘 운영했다고 초반에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단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국장) 일단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단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의 인사나 구성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저희 구단은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구단의 경우 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구단이 추구하는 비전은 정해져 있지만, 그 비전 안에는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새로 오시는 단장님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구단이 추구하는 큰 틀의 목표와 비전은 변하지 않지만, 최종적인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방식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단장님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그런데 단장님들은 어차피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장님이 오실 때마다 사실상 구단의 비전이 매번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사무국장) 아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오기 전부터 구단의 비전에 대해서는 바뀔 생각이 없었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전이기에 때문에 시장님이나 누구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상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방식,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홍보·마케팅 분야에 유능한 단장님이 오시면 경기장 운영이나 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선수단 성적이나 선수단 운영에 더 중점을 두는 분이 오시면 유소년부터 프로구단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다.

결국 최고의 구단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새로운 단장님이 오셨을 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큰 변동 없이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변화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올해는 이적료가 0원이다. 강영훈, 허자웅 선수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 해지를 한 이유

(선수단지원팀장) 기간이 남았었지만 저희가 저 선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며 정리를 한거다.

Q 선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다. 현재 저희 팀에 연세대 출신 선수가 3명 있다. 작년에 진의준 선수와 하재민 선수가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작년에도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고 올해도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하재민 선수는 두 경기를 뛰고 피로골절로 장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진의준 선수는 그래도 교체 명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 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세대 출신 장현도 선수를 또 영입했는데,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선수단지원팀장) 세 선수 모두 가능성이 있어서 영입한 것은 사실이다. 진의준 선수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재민 선수는 부상 때문에 계속 경기에 나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상황임은 사실이다. 장현도 선수는 현재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상태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Q 라커룸 분위기는 성적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장단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주장단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출전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라커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꽤 크다. 처음에 주장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경기 안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주장단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주장단이 경기에 출전하고 못하고에 따라 선수단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Q U22 선수 교체가 많았다. 시즌 초반에는 10분, 20분 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U22 선수를 다른 팀에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혹시 예산적인 문제 때문인지 궁금하다. 다른 구단에도 좋은 U22 선수들이 있고,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무국장)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른 구단에서 선수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쪽 감독님이나 구단의 사정 때문에 이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선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이거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들은 FIFA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없으면 진행하기 어렵다.

Q 영입이 힘들 것 같아 예상해서 공개테스로 U22를 보강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사무국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얼굴을 발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강화실과 감독, 코칭스태프를 포함해 약 10명 정도가 있고,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등록 기준으로 선수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 만 16세 이상이면 프로구단에 입단할 자격이 되는데, 해당 선수들이 2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많은 선수들을 10명에서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Q 그래서 저희가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U22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U22 선수는 경기에 뛰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적료를 지불하더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교체 카드 하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 일단 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2만 명이나 되는 선수들 중에서 공개 테스트를 통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를 뽑아 기용하는 것은 조금 모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모험적인 선택보다는 내년에는 어차피 성적을 내야 하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 스쿼드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U22 선수는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지금 U22에서 확실한 카드 하나를 찾고 있다. 어느 한 포지션에서 그 선수가 무조건 전반전 이상은 소화해 줘야 교체 카드 한 장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를 데려오든, 공개 테스트를 통해 선발하든, 어쨌든 선발로 출전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 U22 자원 중에서는 그런 선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K리그1, K리그2, K3리그, 대학교 선수들까지 U22 연령에 해당하는 선수 중에서 우리 팀에 와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모두 찾고 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39명 중에도 U22 자원들이 비교적 많이 있다. 그 선수들은 지금 가장 먼저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Q. 그럼 공개테스트에서 U22 선수를 무조건 뽑는다는 건 아닌건지

(박진섭 감독) 그러니까 U22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미래 자원일 수도 있다. 3년 후, 5년 후를 바라보는 어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꼭 U22 자원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처럼 경기 시작 후 10분, 15분 만에 교체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이상용 선수가 마지막에 교체 카드가 없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U22 선수 본인에게도 10분, 15분만 뛰고 교체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들도 왜 매번 그렇게 일찍 교체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U22 선수 중 한 자리를 확실하게 맡아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Q. 권용승 선수는 연장 옵션이 있는데, 발휘할 생각인지

(박진섭 감독) 발휘할 생각이다.

Q. 연장 옵션을 빨리 하면 안되는건지, 작년에 이상명 선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나갔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잘하는 선수로 보였는데

(선수단지원팀장) 이상명 선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옵션을 발동하지 않은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된 사항이다. 옵션을 발동하게 되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39명 명단 중에 21세 이하 선수가 6명 있다. 그 선수들도 저희 스카우터와 감독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영입할 수도 있다.

공개 모집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진행비 정도의 소액만 들어가고, 심판비와 대관비, 앰블런스 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큰 비용은 아니다.

공개 모집은 전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도 있고,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하자는 의미도 있다. 또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하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 몇 명을 선발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적합한 선수가 없다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Q.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 툇가라 선수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연봉이 너무 높아서 잡지 않을 생각인지

(박진섭 감독) 제가 알기로는 툇가라 선수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금액을 주고 다시 계약하게 되면 아마 선수 측에서도 2년 정도의 계약을 원할 텐데, 그렇게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현재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툇가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서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협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

Q. 툇가라는 지금 천안에 만족하고 있는지, 연봉을 떠나 환경 등에

(박진섭 감독) 툇가라에게 여기에 만족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같이 훈련하고 있다.

Q. 연봉을 내렸을 경우 툇가라가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내줄 생각인지

(박진섭 감독) 그래서 협상을 할 생각이다. 선수 본인이 원하는 금액과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툇가라 선수를 잡을 것이고, 반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을 벗어난다면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Q. 감독님 말씀은 그러면 툇가라가 지금 연봉 만큼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박진섭 감독)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공격포인트가 적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트라이커나 외국인 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한 시즌에 공격포인트 10개 이상은 무조건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제 기준이다.

Q. 지금 감독님께서 외국인 선수, 특히 툇가라 선수 정도라면 10골 이상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현재까지 6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선수 개인만의 탓은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받쳐줘야 툇가라 선수의 역량도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진섭 감독) 그것도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크로스를 잘하는 설영우 선수를 저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진수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저희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 선수가 크로스를 잘해서 저희 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 안에서 가장 잘하고 저희 팀에 맞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 선수가 툰가라 선수와 합이 잘 맞도록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조직적으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런 선수들만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저도 가능하다면 더 좋은 선수들만 뽑고 싶고, 더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 것이 감독의 마음이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Q 구단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 선수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올해 중간에 라마스 선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제외하면 사실 팬들 입장에서 '누구지?' 하는 선수들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툰가라 선수를 좋아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 툰가라 선수가 팬들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인성,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투지를 팬들도 잘 알고 있다. 팬들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뛰여주는 선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팬들이 툰가라 선수에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재계약은 하지 않는지 등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다.

(선수단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다 인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 물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저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저희가 작년에 정말 많은 선수가 바뀌었다. 감독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 선수들도 많이 교체됐는데, 올해가 감독님 1년 차이로 내년이 2년 차다. 현재 선수단을 100%라고 했을 때, 내년에는 이 선수들 중 몇 퍼센트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박진섭 감독) 일단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선수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선수들도 분명히 몇 명 있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다. 그래서 전체 선수단을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그중 3~4명 정도는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Q 타 팀을 예로 들자면 다른 구단에서 오퍼가 들어올 만한 선수와 미리 계약을 연장하고 나중에 이적시키는 것이다.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저희 선수들 중에서도 다른 팀에서 오퍼가 들어올 만한 선수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팀 순위가 낮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정말 우리 팀에서 잘하는 선수라면 이적료를 받고 팔아도 아깝지 않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구단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적료를 받고 선수를 보내게 된다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응원할 것이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때도 아직은 이르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나중에 더 좋은 구단으로 간다고 하면 아쉽지만 저희도 박스 쳐주면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 그게 제 바람이다. 작년 8월에도 연장 옵션이 있는 선수들 중에 재계약 의사가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질문했을 때, 아직 없고 이르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Q 동계 전지 훈련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항상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다.

(사무국장)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해외 전지훈련을 태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일본의 환율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구단이 일본을 선택하는 추세다.

2차 전지훈련 장소는 이미 확보해 놓았다. 감독님도 의견을 주셨고 좋은 장소가 있어서 일단 장소만 정해놓은 상황이다. 아직 답사를 다녀오지는 않았다. 2차 전지훈련은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해외 전지훈련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박진섭 감독)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적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선수단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정말 죄송하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항상 홈경기뿐만 아니라 원정경기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저희 또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어쨌든 마지막 남은 6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팬분들이 조금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응원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폐회 안내

